

젊고  
푸른  
추억  
한마당

한마당

제 7 회 신인춤제전

제  
점고



3월 23일 (금) 하오 7시 30분  
24일 (토) 하오 3시

part 1

• 안무 : 이준희 (부산대) • 출연 : 이준희

탈.탈.탈

탈이 났다. 내 안에서 탈이 났다.  
내 안의 모든 욕심. 집착. 나의 더러운 심보들에서 난 탈출한다.  
탈탈탈 떨어내리라.  
떨어내어도 그것들은 나의 것이다. 탈탈탈 떨어내어도 난 나이다.



• 안무 : 양진영 (경성대) • 출연 : 양진영

태어나다...다시 돌아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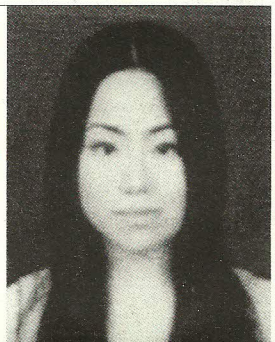
인생은 미로다. 나는 그 미로의 한 가운데 서 있다.  
이곳은 어디인가  
내가 가야할 곳은 어디인가  
또 다른 시작인가  
사라져버릴 운명인가  
난 아직 그 출구를 찾지 못했다...



• 안무 : 임정미 (경성대) • 출연 : 임정미

A<sup>+</sup> ~ 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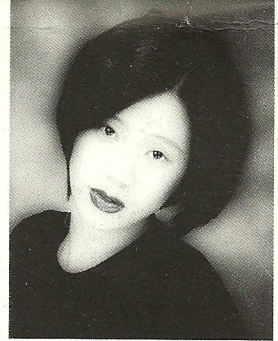
세상사 어디든 상하는 존재한다.  
이것이 살아 숨쉬는 매력이다.



• 안무 : 김경희 (신라대) • 출연 : 김경희, 이경준

## 나 어릴적

나 어릴 적 짝사랑을 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혼자만의 사랑이 아니었다.  
어린 시절, 우리들만의 몰래한 사랑



• 안무 : 조란영 / 우호정 (동아대) • 출연 : 조란영, 우호정, 강은옥, 권혜원

## 무언의 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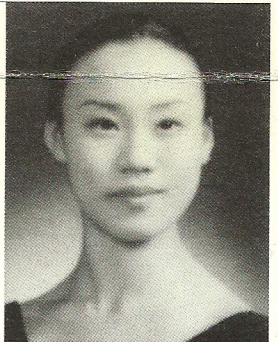
그해 4.19를 기억하십니까?  
수많은 꽃들이 붉은 피로 무참히 짓밟혀야만 했던  
그들의 수없는 아우성들과 영혼들이  
아직도 눈물을 흘리고만 있는 지금!  
도대체 무엇이 옳고 그르단 말입니까?



• 안무 : 전명주 (신라대) • 출연 : 전명주, 김경희, 김민정

## 모습 하나 · 둘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엔  
사회란 곳은 그리 인정스럽고 관대하지 못하다.  
나도 가끔은 이미 길들여진 사회 속의 나로부터  
벗어나 순수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다.



• 안무 : 김태희 (신인출 4기) • 출연 : 김태희

## 내 속에 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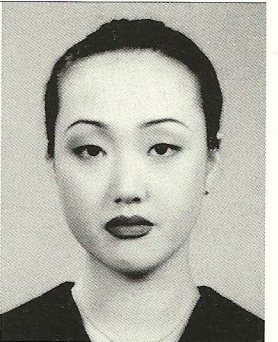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나의 모습.  
이미 주어진 둘 중의 하나.  
허나 내가 원치 않는 하나와 내가 원하는 그 중의 하나.  
내가 바라는 내 속의 하나와 남들이 보는  
내 속의 또다른 하나를 선택할 수 없는 나의 길  
겉과 속의 혼돈, 어지러운 사랑, 나의 성



• 안무 : 박상진 (신인출 4기)  
• 출연 : 이주연, 김혜원, 박세영, 안선희, 임현애, 김성주

## 동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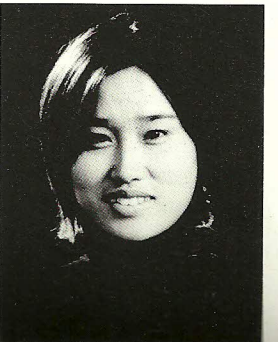
아기낙타가 엄마낙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눈썹이 이렇게 길어?”  
“등에 있는 혹은요?”  
“왜 우린 다른 애들처럼 굽이 갈라지지 않았나요?”  
“응, 그건 우리가 사막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늘님이 내린 축복이란다..”  
“...엄마, 그런데 우린 지금 사막에 있지 않고 여기서 뭐하는 거예요?”



• 안무 : 송윤경 (신인출 3기) • 출연 : 김서리, 박은영, 강모세

## 천생연분

천년동안 살면서 만난 인연일까?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일까?



# 푸른 푸른 한마당

part 2

3월 24일 (토) 하오 6시  
25일 (일) 하오 3시



• 안무 : 손현이 (찬조출연, '그랑발레' 단원) • 출연 : 손현이

## 어머니께 드리는 노래

하늘나라에 계시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어디에 계시든지  
사랑으로 흘러  
우리에게겐 고향의 강이 되는 푸른 어머니  
이해인 시 「어머니께 드리는 노래」 중에서



• 안무 : 신민제 (신라대) • 출연 : 신민제, 이미영

## 아버지와 나

자매가 느끼는  
일상생활에서 소외된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로부터의 화합



• 안무 : 김연정 (부산대) • 출연 : 김연정

## 움 · 숨 · 춤

그것이 움튼다  
그것이 숨긴다  
그것이 나를 춤추게 한다.



• 안무 : 김도경 (동아대) • 출연 : 김도경

## 걸어도...

힘이 들어도  
세상에 빛이 없어도  
...  
그래도 언젠가는 소리낼 것이다.



• 안무 : 권수임 (경성대) • 출연 : 권수임, 양진역

## 나쁜 꿈

내 속에 있는 열망으로부터 도망치려 한다.  
그것이 평온했던 생활에 던져줄 파문과 변화가 두려웠고  
그 열망을 꿈꿀 용기가 없었기에.



• 안무 : 이동용 (경성대) • 출연 : 이동용, 박흥기, 한종철, 김영찬

### 꿈꾸는 돼지

따뜻하고 시원한 바람에 잠을 자기도 싫다.  
밥통의 밥은 어느새 쌓여만 가는데  
일은 한다, 밥을 간다.



• 안무 : 김윤선 (신인춤 4기) • 출연 : 김윤선, 조현영

### 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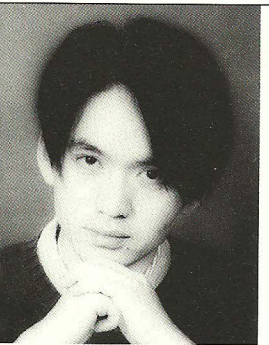
일을 보다가 우연히 아래를 보았는데  
내 속에서 저것이 나왔으리라고는 상상이 되질 않았다.  
버려도 버려도 내 속에 있는  
저 똥은 무엇인가.



• 안무 : 김보경 (신인춤 3기)  
• 출연 : 김태경, 구미륵

### 봄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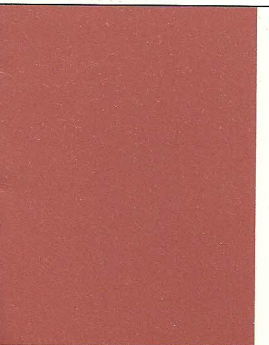
우리는 다른 이가 정해 놓은 인생을 향해  
달려가기만 하는 건 아닐까



• 안무 : 박근태 (신인춤 6기)  
• 출연 : 송성아, 이소라, 김시흥, 김해원, 안선희, 임현애

### 여우야

허황된 아름다움. 그 여자의 이야기.



• 안무 : 임현미 (특별찬조출연, '트러스트' 단원)  
• 안무 : 임현미

### 폭포

폭포는 꿈은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꿈은 소리는 소리이다.  
꿈은 소리는 꿈은  
소리를 부른다.

#### 스텝

- 무대 : 변인수 • 조명 : 이성원 • 음향 : 염지연 • 사진 : 이장수 • 편집 : 권성훈
- 디자인 : 김정희 • 영상 : 이호근 • 진행 : 손재서, 이상우
- 프로그래머 : 이성원(부산시립무용단 부수석), 김경하(신인춤 1기), 방영미(신인춤 2기, 하야로비 현대무용단원), 허경미(신인춤 2기, 부산시립무용단원)
- 총기획 : 최찬열(사)민족미학연구소 사무차장, 최정완(부산민주공원 공연프로그래머)

7시 30분  
3시, 6시  
3시

장

송, PSB 부산방송

후원 : 부산일보, 국제신문, 내일신문  
KBS 부산방송총국, MBC 부산문화방송, PSB 부산방송  
주최 : (사) 민족미학연구소, 부산민주공원  
문의 : 051) 241-5898, 462-1016

## “예술춤이 아닌데에 춤의 열정을”

### I.

올해에 와서 시대는 원연히 21세기로 접어들었다.

지난해 말 새로운 세기, 새 천년을 맞이한다고 야단법석, 난리굿이더니 정작으로 올해는 잠잠해졌다.

민생고와 정치사회의 불안, 심리적 황폐감은 여전한데 심신을 달래줄 판벌임도 없이 적막하여 웬일인가. 아니면 이렇게 피폐할수록 내면의 성찰에 마음을 쏟아 평안을 되찾고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것인가. 아날 터이다. 가는 세월, 오는 봄도 오고가면 그뿐, 밀도 끝도 없이 나타와 무기력과 자기연민에 빠져 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건 아닌지, 그날이 그날이고 그해가 그해여서 사는게 사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무엇을 바라고 살고 있는 것일까.

살아있어 좋은 최소한의 그 무엇이라도 예비해 놓았는가. 미처 아닌듯하다. 이런 때야말로 예비한지 오래되어 '예감에 가득찬' 춤 한자리가 그리웁고 목에 탄다.

### II.

그런데, 요즘 춤 공연이 넘쳐나고 있다.

극장무대에 올린다고 모두 예술작품일 수는 없겠으나 창작이든 재현이든 지천에 깔려있다. 이런 호환국면에 '춤의 르네상스 도래' 라는 말조차 양적으로 미흡하기 짝이 없어 보인다. 춤꾼은 예술생활하기 바쁘고 구경꾼은 문화생활하기 바쁘다.

예술적 표현욕구가 오늘날 이렇게 폭발적으로 분출할 미적 잠재력이라도 숨어 있었던 것인가.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느긋하게 고급 춤예술을 즐길 수 있는 문화향유권이 이제서야 일상생활화 되기라도 한 것인가.

한갓된 몸놀림으로, 허풍떠는 예술취향으로 몸과 돈과 생체에너지, 인생관만 탕진하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보아 마땅하다.

안그래도 몸가지고 하는 춤예술인데, 쌍방간에 몸혹사, 몸소진이 오죽 심하랴.

그러기에 다시 돌이켜 보기로 하자.

### III.

춤은 예술지향의 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술가의 예술춤과 일반인의 유희춤, 양쪽 모두에게 원컨대는 이렇하다. 예술지망자 뿐만 아니라 기성의 예술가까지도 예술공연을 잠시 접어두고 일상인이 추는 춤판으로 이런 예술춤공연의 열기를 옮겨보는 것이다. 스스로를 절제하고 반쯤만이라도 민중의 삶의 춤판에 예술적 열정을 쏟아보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는 잃어버린 듯한 춤의 옛기운이 그의 몸속에서 되살아날 것이 분명하다.

청소년층의 합창도, 중장년층의 스포츠댄스도 몸에너지의 돌이킬 수 없는 탕진이라면 나쁜 춤바람일 뿐. 그럼에도 몸의 정서가 던져주는 신령스런 우주교감은 차라리 마구잡이춤이 이를 더욱 부추기는 바일 것이니.

사람마음 가운데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온갖 미물이든 몸섞어 신기가 통하는 천지공유 의 신명판이 이를 통해 되살아날 것이다. 그리하면 이땅에서 춤의 사회적 태도도 튼튼해질 것이고, 마구잡이 춤도 질적으로 고양될 터이니, 그때 예술춤은 이를 타고 노니는 것이다. 그때 예술적 성취감은 말로도 못하게 넘쳐날 것이다.

### VI.

이러한 예술춤속에는 일해방, 신·우주와의 소통·교류, 자연과의 합일, 죽임축출과 심신의 치유, 공동체 결집 등 이제는 소멸된 듯한 인류시원의 옛춤의 주제들이 다시 소생하여 있을 것이다.

정신적·육체적 나약함과 시대적 병폐에 젖고 찢은 21세기의 초입에서 다시금 21세가 춤의 시대임을 확인하는 것은 왜 그러할까.

이러한 원초적이고도 강력한 주제들이 수천년 은폐된 자리에서 펼쳐나와 예술춤이 아닌 데서부터 밝게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온 천지만물에 신령한 기운을 유통시키는 接化群生의 옛 춤바람, 風流가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술춤이 아닌 데에 쏟아붓는 새내기 춤꾼들의 젊고 푸른 열정이 새로운 예술춤의 시대를 앞당겨 열어젖히고 있다. 새로운 세기에 새로운 춤바람이 분다. 새 천년 이른 봄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2001. 3. 23.

민족미학연구소 소장 채희완